

팔당 농민들의 삶과 투쟁

서 규 섭(농민,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

나는 두물머리를 지킨 농민으로서 이 글을 쓴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다. 광화문 거리에서 들려오는 아침이슬 노래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으며 민심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포기하겠다고던 한반도 대운하는 곧 4대강 사업으로 둔갑하여 다시 등장하였다. 정부는 절차와 법을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팔당유기농지도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팔당유기농단지에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2000년 2월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왔다. 두물머리에 땅을 마련하여 처음 농사를 시작했다. 이듬해 두물머리 강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 딸아이 둘을 낳았다. 허리를 굽힐 수 없었던 만삭의 아내는 긴 막대기에

매달아 준 호미로 김을 매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두물머리 농막에 놀이터를 만들고 우리 내외가 일할 동안 그곳에서 놀게 하였다. 두물머리는 나에게 농사를 처음 가르쳐준 곳이고 유기농을 처음 알게 해준 곳이다. 처음에는 낫설고 어설펠던 농사가 시행착오, 우여곡절 끝에 안정을 찾을 즈음, 4대강 사업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유기농 마을 진중, 송촌리는 4대강 사업 한강살리기 제9공구, 광주 귀여리와 양평 두물머리는 4대강 사업 한강살리기 제1공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때만 해도 4대강 사업이 팔당유기농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내 삶과 이렇게 직결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 4대강 사업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팔당농민대책위의 결성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22조의 예산으로 16개의 보 건설과 준설, 수변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내용이었다. 강변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위해 농지를 내놓고 떠나야할 신세가 되었다. 광주 귀여지구의 농민 2백여 명, 진중 송촌지구의 농민 6십여 명, 양평 두물머리의 농민 10여 농가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라는 긴 이름의 농민대책기구를 만들었다.

광주 귀여지구의 농민들은 2004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채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경작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의 압박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대부분 관행농법으로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이었고 그 중 한 농가만이 유기농을 하고 있었다. 우리와 처지가 달랐던 광주 귀여지구의 농민들은 팔당공대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가 어려웠고 얼마 후 광주시의 중재로 보상과 대체부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귀여지구 문

제는 꽤 일찍 마무리되었다.

팔당공대위가 결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광주, 남양주 시청, 양평 군청 그리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팔당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팔당유기농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며 유기농지를 보존해 달라고 청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팔당공대위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팔당공대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단순한 청원서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팔당공대위는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들어갔다.

싸움의 시작

“수십 년 이어온 팔당 유기농지 보존하라!”

“우리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

농사일을 바친 농민들은 직접 현수막을 만들어서 곳곳에 매달았다. 휴일에는 전철역, 도로변에서 전단지를 돌렸다. 현수막이 찢겨되면 다시 붙이고 떨어지면 다시 붙였다. 2009년 7월 7일, 모든 현수막이 동시에 찢겨되는 사건이 터졌다. 국토해양부 차량이 범인이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상대가 국토해양부이고 게다가 불



트랙터를 몰고 시위하는 농민들

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깝고 억울했지만 찢겨당한 현수막을 포기하고 다시 만들기로 했다.

그날 저녁,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온 유영훈 회장(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 회장)의 전화를 받았

다. 농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해당 지자체의 소관이므로 중앙부처가 나서서 철거할 법적 권한이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농민들의 재산을 흠쳐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며 농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팔당농민들은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현수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허락도 없이 농민들의 재산을 흠쳐간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배짱 좋게 큰소리쳤다. 며칠 후 국토해양부는 팔당공대위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과하고 현수막을 돌려주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은 사건이었지만 나는 이 일을 잊을 수 없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싸움이었고 첫 승리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훈 회장은 팔당공대위의 대표로 팔당 싸움에 합류하게 되었다.

정부는 팔당지역에서 실시설계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주민공청회를 열기 시작했다. 팔당지역 제9공구와 제1공구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였다. 팔당공대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수용할 수 없고 사업의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공청회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시간에 맞춰 이미 유기농지 사수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출입구를 봉쇄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연단을 점거하였고 그래도 진행을 강행하면 마이크를 뺐었다. 정부는 수차례 설명회와 공청회를 시도했지만 농민들에게 막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되어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사업은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였지만 이것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공권력 투입

2009년 10월 26일 아침, 정부는 경찰병력 1천 6백여 명을 동원하여 팔당유기농지에 강제 측량을 시도하였다. 농민들은 맨몸으로 입구를 막고 경찰과 맞섰다.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글씨와 두물머리 농장에서 상추를 따는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하여 수십 년 유기농을 이어온 농민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팔당유기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팔당농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농민들은 지원은 안 해도 좋으니 빼앗지나 말라고 했다. 농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시오’라는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농민들은 현수막을 거꾸로 매달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거꾸로 가니 현수막을 거꾸로 매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찰과 대치중인 농민 시위대

농민들은 수백 명의 경찰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공사업체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측량을 강행했다. 측량을 막으며 끝까지 저항하던 농민과 생협 조합원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농민들은 1차

공권력 투입을 겪으면서 결국 이 싸움은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면 팔당유기농지 보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깨달은 농민들은 싸움을 정치권, 시민사회영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색채를 띤 싸움으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행정 소송으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농민선전단을 꾸려서 팔당싸움을 밖으로 알렸다. 팔당농민들은 본격적

으로 아스팔트 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기농 오염론

팔당싸움이 밖으로 알려지면 질수록 여론은 대체로 농민들 편이었다. 정부와 경기도는 불법경작과 유기농 오염론으로 반격하며 여론을 뒤집으려고 했다. 팔당호 인근의 94%는 불법경작 농민들이며 이들이 팔당호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퇴비더미의 더러운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사진과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팔당농민들이 강물을 더럽히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어느 교수가 실내에서 한 실험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화학농법이 유기농법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도하였다. 팔당호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행락객들이 팔당을 떠나게 되는데 악취의 원인이 농사라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다. 김문수 지사는 팔당유기농지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정부와 경기도는 방송, 신문, 인터넷,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팔당농민들을 불법경작자,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농민들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환경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유기농을 왜곡하는 방송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94%가 불법경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연구원을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들었다. 나중에 환경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경작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화학농법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 논문의 원본을 찾아서 확인하였다. 이 실험은 인위적으로 만든 실내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와 경기도는 수백 쪽의 논문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전단지의 퇴비더미 사진도 위성판독 결과 낙동강 부근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유기농 공격은 대부

분 허구이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부도덕성과 알뜰한 술수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정부와 경기도의 유기농민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공격과 비겁한 태도를 보면서 국가와 행정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후로 팔당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경기도를 믿지 않았다.

1차 단식

정부는 강제측량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감정평가를 시도하였다. 이제 팔당유기농지 문제가 보상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팔당농민들은 당연히 감정평가와 보상을 거부하였다. 팔당공대위는 일단 농지주변 순찰을 돌며 감정평가사들의 출입을 막고 매일 밤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 절차와 효과적인 거부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한 두 농가가 팔당공대위의 방침을 어기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며칠



단식투쟁에 돌입한 농민들

후, 농민 몇 사람이 공대위를 찾아와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방침은 지키기가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보상금이 걸려있는 감정평가에서 농민들은 팔당공대위의 방침이 아니라 혹시나 본인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금전적 불이익이 중요했던 것이다. 팔당공대위는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첫 번째 조직의 위기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경기도는 팔당농민들에게 대체농지를 제안하였다. 농지보존 싸움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기약 없는 싸움에 지친 주민들은 대체농지 수용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갔다.

흔들리는 농심을 붙잡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9년 12월 4일, 팔당공대위 유영훈 대표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단식농성을 단행하였다. 이 단식은 밖으로는 결사투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었고 내부로는 보상과 대체부지로 불거진 조직의 분열과 이탈을 막아 보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행동이었다. 팔당공대위 대표의 갑작스런 단식에 농민들은 놀랐던 것 같다. 나이든 어떤 농민은 장어구이와 소주를 사들고 와서 며칠 굶은 대표에게 먹으라고 권하였고 어떤 농민은 찌뽕을 가지고 와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슬쩍슬쩍 먹으라고 하면서 두고 가기도 했다. 단식농성이라는 것을 처음 지켜보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가지로 표현되었다. 농민들은 매일 당번을 정하였고 당번은 유영훈 대표와 함께 굶으며 단식농성장을 지켰다.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단식농성장에 모였다. 자연스럽게 팔당공대위 대책회의가 매일 열리게 된 것이다. 헤어질 때면 서로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로 하루를 마감하였다. 보상과 대체부지 문제로 불거졌던 팔당공대위 분열조짐이 유영훈 대표의 19일 단식에 힘입어 봉합되는 듯 보였다.

성직자들

2010년 2월 17일, 개신교는 송촌리에서, 천주교는 두물머리에서 4대강

사업 저지와 팔당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기도회와 생명평화미사를 시작하였다. 팔당유기농지 보존투쟁에 성직자들까지 나선 것이다. 정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오던 농민들로서는 가장 든든한 우군을 만났다.

송촌리에는 100년 역사의 용진교회가 있다. 식민지 해방운동과 유신반대 투쟁의 전통이 있는 용진교회는 송촌사람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기도 했다. 용진교회의 김선구 목사님은 팔당농민들의 동지였고 용진교회는 목사님들의 금식기도 내내 투쟁의 거점이 되었다. 처음에 목사님들은 농민들이 세운 기도처를 더 높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정도 높이로는 불통이명박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강바람이 세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목사님들을 설득하였다. 기도처 밑에서 예배를 마친 목사님은 사다리를 타고 기도처로 올라가셨다. 사다리는 다음 날까지 치워졌고 목사님은 그 위에서 1박 2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다. 눈비가 내리고 바람이라도 세게 부는 밤이면 농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에 기도처를 둘러보았지만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 목사님들은 진중, 송촌리 싸움이 마무리되는 2010년 10월 중순까지 200일이 넘도록 금식기도를 이어갔다.

양수리 인근 문호리에는 수도원이 있다. 2010년 1월 11일, 수도원의 윤종일 신부님은 팔당공대위 유명훈 대표가 단식을 마치자 이것을 이어갔고 수사님들의 릴레이 단식은 150일 동안 계속 되었다. 이 단식은 두물머리 생명평화 매일 미사로 이어졌고, 이후 미사는 930일 동안 계속되었다. 윤종일 신부님은 수사님들의 단식은 균불을 지핀 것에 불과하다고 간단히 표현하였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농민들에게 비춰진, 송촌리의 목사님과 두물머리의 신부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신부님들은 미사 중에 두물머리의 상황과 농민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농민발언 시간을 넣어서 농민들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 팔당싸움의 상황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도 공유하였다. 신부님과 신자들은 농민들이 미처 판매를 못하고 있는 농산물이라도 있으면 성당에서 팔았고 일손이 부족하면 농사일을 도왔다. 농민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술친구가 되기도 했고 농민들의 장난기어린 내기당구 제안에

도 기꺼이 응해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물머리 논둑길을 걷는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의 낯선 풍경은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었던 것 같다.

2차 공권력 투입과 2차 단식

2010년 2월 24-26일 진중, 송촌리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정부는 측량과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몸싸움 과정에서 농민 11명이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남양주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후 진중, 송촌지구의 사업을 맡은 대립건설은 강하게 공사를 밀어붙였고 공사를 막기 위한 농민들의 싸움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2010년 4월 8일, 남양주 시청에서 대체부지로 이전을 합의하는 민관 협약식이 있었다. 팔당공대위의 농민들이 협약식에 참여하거나 이름을 올렸다. 팔당공대위는 협약식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팔당공대위는 농민들의 이탈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7월 29일 진중, 송촌지구에 공탁이 내려졌다. 정부는 공탁 이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들어갈 것이며 철거비용 수억 원은 모두 농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농민들은 다시 술렁거렸다. 현장에서 공사를 막는 농민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당시 팔당공대위는 철거비용 부담에 흔들리는 농민들을 돌아 세울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채 농민들은 하나, 둘 싸움을 포기하고 있었다.

2010년 8월 9일 유영훈 대표는 정동 서울지방국토청 앞에서 진중, 송촌지구의 공탁철회를 요구하며 2차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나중에 천주교 신부님까지 단식에 합류하였다.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진중, 송촌리에서 공사시도를 막는 싸움은 계속 되고 있었다. 끝까지 남아 있던 농민들은 사력을 다해서 공사를 막았고 해가 지면 서울지방국토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리는 촛불행사에 참석하였다. 집회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유영훈 대표를 보고나서 밤늦은 시간에 다시 팔당으로 돌아왔다. 단식은

12일 동안 계속되었다.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팔당유기농지를 휩쓸고 지나갔다. 진중, 송촌리 농민들의 비닐하우스가 태풍에 의해 완전히 부서졌다. 그렇게 진중, 송촌리 농민들의 마음도 부서졌다. 이후 진중, 송촌리의 농지보존 싸움은 막을 내렸다. 기도처의 목사님들은 금식기도를 중지하고 4대강 순례의 길을 떠났고 농민들은 대체부지로 이주를 결정하였다. 그 후 팔당유기농지 보존 싸움은 장소를 두물머리로 옮겼다.

농지구입 자금

2010년 11월 4일, 경기도는 공문을 보냈다. 두물머리 농민들에게 이주를 전제로 한 유기농 지원 대책 즉 저리(低利)의 농지구입 자금과 시설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농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졌다. 경기도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수용불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팔당공대위가 싸움의 거점을 두물머리로 옮긴 후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공대위는 일단 마지막 4대강 사업 예산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내리자고 미루어 놓고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때 시민, 사회, 환경단체는 다음해 마지막 4대강 사업 예산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로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제 팔당공대위는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농민들은 경기도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몇날 며칠을 논쟁하였지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리와 명분의 싸움이었다. 나는 그때 명분은 실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팔당공대위는 긴 논쟁을 끝내고 결정을 내렸다. 팔당농민들은 싸움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하였다. 도저히 전체 농민들이 싸움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함께 이 싸움을 정리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날 저녁

팔당공대위는 유기농지 보존 투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두물머리 11농가 중에서 4농가는 공대위의 결정을 뒤집고 두물머리에서 싸움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떠나는 7명 농민과 남기로 한 4명 농민은 서로 말이 없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왜 남아있기로 생각을 바꾸었냐고 묻곤 한다. 유영훈 대표는 “함께 하자”가 깨어진 지금 이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공대위 업무를 중지하고 발걸음을 끊으셨다. 아무튼 나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다. 나뿐만 아니라 팔당공대위는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다.

승 소

두물머리 싸움은 또 다시 해를 넘겼고 두물머리에는 이제 4명의 농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럭저럭 팔당공대위는 조직을 추스르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법에서 하천점용허가 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 이익보다 비교 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 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팔당 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2011년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 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 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한다.”

농민들이 승소하였다. 뜻밖이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양평군은 2010년 3월 24일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두물머리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

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민들은 부등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제소했던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그런데 두물머리 농민들이 유일하게 승리한 것이다. 7농가의 이주결정 이후 두물머리 싸움은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론에서도 팔당 유기농지 보존 투쟁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승소판결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버렸다. 나는 승소 다음날 두물머리로 몰려오는 기자들과 카메라를 보고 그 사실을 실감하였다.

두물머리 대안연구단

두물머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두물머리 식구들도 많이 늘어나서 떠날 일곱 농민의 빈자리보다 더 많이 채워졌다. 농민, 천주교연대, 생협, 청년활동가... 팔당공대위는 청년들과 함께 '팔당농민 후원 그림전'을 열어서 수천만 원의 투쟁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받은 벌금과 앞으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수도권 신부님은 두물머리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역사, 철학, 공동체에 관련된 강좌를 열었다.

농민들에게는 아직 꼭 벗고 싶은 오명이 있었다. 정부와 경기도가 공격하고 있는 유기농 오염론이다. 농민들은 전문가들에게 두물머리에 유기농, 생태, 환경, 체험, 교육이 어우러지는 상생의 대안농장을 만들어서 유기농이 생태환경에 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정부와 경기도는 친정부 성향의 학자와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유기농 오염론을 주장하며 공격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속만 태우며 당하고 있던 터라 대응할 이론적 무기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했었다. 농민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두물머리 대안연구단'을 만들고 2011년 4월 25일 가톨릭 회관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5개월 후 대안연구단은 두물머리 대안농장을 완성하였다. 비닐하우스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육지쪽으로 붙였다. 비닐하우스는 밭과 논이 둘러

싸게 하였고 농지 밖으로는 완충벨트와 수생정화식물 지대를 배치하여 빗물이나 농업용수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정화 되도록 설계하였다. 인위적인 공간은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안농장이었다. 농장의 구성은 도시민들을 위한 시민텃밭, 유기농을 통한 치유농장, 귀농자들을 위한 실습 및 교육장 그리고 중앙에 농민들의 농장을 배치하였다. 말하자면 시민 개방형 농장인 것이다.

2011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에 즈음하여 두물머리 대안농장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제안하였다.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생협,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은 농민들의 대안농장을 지지하였다. 세계유기농대회의 참석자들도 팔당농민들의 투쟁과 두물머리 대안농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 지구에 농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두물머리 농민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불복종 경작투쟁

다시 해를 넘기고 두물머리는 2012년 봄을 맞았다. 농민들은 농사준비를 하였고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였다. 2011년 12월 말, 공사기한을 넘긴 경기도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농민들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경작을 막았다. 농민들과 공무원들과의 싸움이 한동안 계속 되었다. 정부는 농민들을 불법 경작 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작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였다.

농사가 불법이라면 나를 고발하라고 선언한 시민들이 ‘두물머리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불복종 경작 투쟁에 들어갔다. 그동안 고발과 벌금이 누적된 농민들은 한발 물러서고 발전위원회가 두물머리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발전위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코도 피아 청년들, 록빠(티벳을 돕는 사람들), 귀농학교, 생협, 야학, 교회, 천주

교, 녹색당, 변호사, 목사님, 지역주민... 이들은 농민들과 함께 두물머리에 씨앗을 뿌렸다. 발전위원회는 “농사가 투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외부세력을 결집시켰다. 그들은 주말과 휴일에는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지었고 주중에는 도심에서 1인 시위와 길거리 홍보를 하였다. 농민들이 가처분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발전위원회는 탄원서 3,961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발전위원회가 열었던 유기농 음악회, 유기농 집회, 유기농 행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쾌하고 독특한 방식의 저항이었다. 팔당공대위, 천주교와 함께 발전위원회는 두물머리를 지키는 세 번째 주체로 등장하였다.

결국 경기도는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에 반납했다.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으로 넘어갔다. 서울청은 사업권을 받자마자 공사를 밀어붙였다. 두물머리에서 싸움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강제철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8월 6일자로 두물머리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과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농사시설을 강제철거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들은 사람들은 두물머리 유기농지로 모여 들었다. 천막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두물머리 사람들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매일 미사를 마치고 나면 두물머리를 떠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농지를 지켰다. 환경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은 순번을 정해서 두물머리를 지키고 농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매일 아침 천막촌을 지키던 두물머리 사람들은 농지를 돌며 행진하였고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토론과 문화행사를 이어갔다. 마지막 싸움을 기록할 영상팀이 꾸려지고 생협 소비자들은 매일 세끼 식사 준비를 담당해 주었다. 8월 6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수천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얘기와 강패같은 철거전담 용역들이 투입된다는 소문이 나들기 시작했다. 두물머리를 지키던 청년들은 비폭력 평화적 저항 방법

을 연구하고 실제로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그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왔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경찰에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하는 곳에서, 팔당공대위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죽을힘을 다해 싸워왔지만 꼭 지켜온 것이 비폭력 평화적 투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지키자고 이야기했다. 농민들이 끌려가고 나면 두물머리는 토건업자의 사업장이 되고 유기농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연행된 이후의 일들까지 대처할 여유가 당시에는 없었다. 할 만큼 했고 싸울 만큼 싸웠으니 아쉽지만 있는 그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듯 했다.

8월 6일 아침이 되었다. 두물머리 사람들은 이른 새벽 미사를 마치고 행정대집행이 시작될 진입로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두물머리 강가의 갈대와 부들을 들고 유행가 가락에 맞춰 춤을 추었다. 행정대집행 개시문을 읽는 공무원 앞에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방패 앞에서도 춤을 추었다. 야당 정치인도 흥겹게 춤을 추었고, 생협 조합원, 농민, 학생도 춤을 추었다. 그날 아침,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두물머리 사람들의 춤은 행정대집행을 막는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8월 6일 행정대집행 개시문을 읽고 일단 물러갔다. 강제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고 철거 날을 잡는 것은 저들의 몫이 되었다. 언제 강제철거가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두물머리 사람들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합 의

2012년 7월 29일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님이 두물머리를 방문하였다. 주교님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 쌍용자동차

차 노동자들의 희생,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언급하면서 또 다시 두물머리 농민들을 공권력으로 짓밟는다면 한국 교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강제철거 기사를 언론에 흘리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고, 8월 6일 행정대집행 개시로 이어졌다. 정작 강제철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전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배달되어 왔다. 쌀자루와 부식꺼리, 생수와 의약품들이 창고에 쌓여갔다. 그러나 두물머리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싸움과 더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8월 14일, 4대강 사업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이 이용훈 주교님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유명훈 팔당공대위 위원장과 함께 수원으로 갔다.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 우리는 이용훈 주교님과 심명필 본부장을 만났다. 심명필 본부장이 합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1. 두물머리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

- 지자체(경기도, 양평군) 주관으로 관계전문가, 민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생태학습장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협의기구에서 결정한다.
- 협의기구는 정부, 지자체, 천주교, 농민 측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 생태학습장 조성은 영국의 라이튼 정원, 호주의 세레스 환경공원을 참고한다.

2. 농민 측은 즉시 두물지구 내 지장물을 철거한다.

대화는 막혔고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전면전을 향해 치달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주교 주교님을 통해 협상안이 만들어졌다. 팔당공대위는 주교님의 중재안을 수용하였다.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합의

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날아든 협상타결 소식에 두물머리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치열한 내부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협상타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협상타결 내용과 합의주체에 대한 논란까지 내부토론은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 되었다.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사람들은 두물머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모든 협상은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게 되는 것 같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최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다. 농지보존 투쟁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투쟁을 생각하면 미련과 아쉬움이 남겠지만 두물머리 농민들은 차선의 합의를 수용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이것이 협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농부로

팔당에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 치열했던 농지보존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지금은 두물머리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나는 팔당 두물머리 싸움의 한 주체로서 감당해 왔던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임무를 조용히 내려놓고 한 농부로 돌아와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협의기구가 합의안대로 두물머리에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두물머리에서 농사짓던 나의 터전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싸웠던 경험은 앞으로 내가 꿈꾸는 농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또한 흔들림 없이 한 사람의 농부로 살아가게 할 표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農